

보광 10주년 예배

“끝까지 참고 견다는 인내로써 이긴자가 된다”

승리제단 신도회(회장 김상욱 승사)는 조희성 구세주의 보광 1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본부제단에서 1부 예배를 보았다.

예배 말씀은 보광절에 맞추어 조희성 구세주께서 2003년 8월 13일 하신 마지막 말씀으로 준비하였다.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비디오 설교를 통하여 영생의 길은 참고 견디는 인내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내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귀의 약점은 인내력이 없다는 것을 조희성 선생께서는 마귀와의 투쟁에서 간파하셨고, 인내로써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인내만큼 중요한 것이 승리하는 데에는 없다는 것이다.

비디오 설교 말씀 후에 무궁화합창단의 ‘보광가’ 합창과 무궁화관현악단의 ‘보광하신 주님이시여’ 연주가 있었다.



묘소참배예배에서 무궁화합창단이 '우리 승리하리라' 합창을 하고 있다

으시고 행하시고 계신 천지공사에 저희 자식들도 온 힘을 다하여 주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는 말씀으로 묘소참배예배를 시작하여, “이영자 총재와 김상욱 회장을 비롯한 모든 식구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모든 신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예배를 마무리 하였다.

다음은 말씀을 요약한 것이다.

윤대표 말씀 요약

6천 년간 마귀 종 노릇하는 당신의 자식들이 죽어갈 때마다 탄식과 비탄한 속에서도 당신 자식들을 살려내는 비결과 무기를 개발하시어 영생의 지상천국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이기신 하나님께서 친히 구세주가 되시어 오신 지 34년이 되었다.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생명의 신으로 마귀 대장을 죽이고 승리하시어 삼위일체로 완성되신 하나님으로 마귀에게 패할 때 잃었던 전지전능을 다시 회복하신 완성의 신이시다. 구세주님은 영원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생명체인데 지금은 사람 몸을 빌려서 입고 있으며(2001.8.24. 말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신으로 원시반본이 되는 존재이며(2000.9.10. 말씀), 구세주의 본체는 마귀대장을 죽여 없앤 후 마귀가 권세를 잡고 누렸던 그 보좌에 앉아 있으며 또 이 단상에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존재는 본체가 아니라 분신체(2001.10.28. 말씀)라고 보광을 암시하는 말씀을 미리 하셨다.

또한 구세주께서는 백보좌 심판자로서 참세 이래 모든 인류를 심판하게 되며, 그때에는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

는데 그 은혜의 빛을 받으면 인간 속의 마귀가 전부 전멸하게 된다(2002.1.23. 말씀)고 하셨다.

자신을 양망하는 자를 위하여 다시 오시어 빛을 발하시며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신은 오직 삼위일체로 완성된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일(이사야 64:1-5 참조)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식들의 미진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한 하나님을 만들어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또한 창세 이후 태어난 역조창생과 현 인류를 백보좌심판을 위하여 반드시 영광된 빛으로 우리 앞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을 확신하며 고대하고 있다.

주님의 보광으로 당신 자식들은 철이 들었고, 당신이 얼마나 힘든 길을 가셨는지 역만분지 일만큼 맛보고 있으며, 보광 전보다 훨씬 강한 은혜의 맛을 보고 있으며, 영생하는 율법인 자유율법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깨닫고 있다.

주님! 우리 식구들이 자유율법의 고차원의 말씀을 암송하고 깨닫고 행하여 24년간 주님께서 키워주신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두루 살피시어 노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성숙된 자식의 도리를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또한 이영자 총재와 김상욱 회장을 비롯한 우리 식구 모두에게 무한한 축복과 힘과 용기와 건강을 허락하시어 마지막 역사를 주님 뜻에 합당하게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김중현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38)

“보광(普光)하신 주님이시여!
통한(痛恨)의 주님 보광10주년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생명체예요. 영원영원 전부터 살고 있는 생명체인데, 지금은 사람 몸을 빌려서 입고 있는 거예요. 사람 몸만 벗어 던지면 그대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냥 그대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는 사람이예요(2001년 8월 24일 말씀 중에서).

인간의 몸을 쓰고 와서 오늘날 인간의 말을 하고 있지만, 실은 때가 되면 다시 환원이 될까? 다시 환원이 되면 인간은 못 봐(2000년 9월 10일 말씀 중에서).

이 사람은 언제 어느 때에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뒤집으러 왔기 때문에 움직이는

행동이 비밀리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이해해 줘야 해. 배신감으로 속았다고 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예요(2000년 11월 7일 말씀 중에서).

바로 이 공중 높은 곳에 마귀 대장이 있습니다. 그 마귀 대장하고 이 사람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싸워서 그 마귀 대장을 죽여 버렸어요. 그 마귀 대장을 죽여 버리고 사실은 이 사람의 본체는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 단상에서 설교도 하고 예배 인도하는 이 사람은 본체가 아니고 분신체입니다(2001년 10월 28일 말씀 중에서).*



먼저, 겸손하고
학구적인 자세를 가져라

참 진리를 알고 깨닫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은 바로 ‘겸손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학구적인 자세’이다. 무릇 사회에서 존경받고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이러한 덕목을 기본으로 갖춘 사람이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려 해도 이러한 덕목은 필수이거늘, 하물며 잘못된 길을 고치고, 죽을 사람이 안 죽을 사람으로 바뀌는 데 있어선 말할 것도 없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질, 절차탁마(切差琢磨)에 관한 이야기다.

다산 정약용은 실학사상을 실천한 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무거운 돌을 쉽게 들 수 있는 ‘거중기’를 고안해 내어 힘을 덜 들이고 노역할 수 있게 하여 수원 화성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목민심서>라는 책을 써서 벼슬아치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세웠다. 암행어사로 일할 때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부패한 탐관오리를 적발해 내기도 했다.

이런 정약용이 친형 정약전과 오랫동안 귀양살이를 해야 했다. 그런데 힘들고 외로운 귀양살이 중에도 형제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을 논했다. 정약용이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몇 해 전에 썼던 글을 다시 보니 갈지 않은 옥이요, 제련하지 않은 광석이요, 아직 쥘지 않은 겨 불은 버

요, 뼈가 나타나지 않은 껍질이요, 아직 굵지 않은 도자기에 설익은 복숭아 같았습니다. <시경>에 절차탁마해야 한다 했는데 바로 이를 두고 말하는 걸 겁니다” 했다 한다.

정약용은 상당히 높은 학문의 경지에 이른 대학자이면서도 겸손하고 끝없이 배우려고 하는 학구적인 자세까지 갖춘 보기 드문 걸출한 인물이 아닌가 싶다.

인생이란 험난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다 같이 귀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이면 누구나 암굴 속에 깊이 갇힌 원석(불완전한 인간)과도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자신을 갈고 닦으면 얼마든지 귀한 보석과도 같은 완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라도 풀덩어리 속에 감춰진 원석과도 같은 입장이기에 누구라도 갈고 닦고 배우고 익히는 것을 게을리 하고 우습게 여겨서는 자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고, 새로운 변화를 입을 수도 없다. 자신 속의 깊이 묻힌 찬란한 보석(신성神聖)의 광채(진면목眞面目)는 반드시 절차탁마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철리(哲理)와, 그 바탕에는 항상 겸손하고 학구적인 자세를 잠시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김주호 기자

조희성 구세주와 수원나그네

격암유록 생초지락편에는 이러한 예언이 있다. 聖切生焉神明明出(성절생연신명출) 성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신명으로 출현하는구나. 逢別幾年書家傳(봉별기년서가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고 예언서에 전해져 내려오는데, 更逢今日修源旅(경봉금일수원려) 오늘 다시 만나는 수원나그네. 誰知今日修源旅(수지금일수원려) 누가 그 수원나그네를 알겠는가. 善人英雄壽逢年(선인영웅희봉년) 선인과 영웅이 기쁨으로 만나는 해로구나. (중략) 知解此書有福家(지해차서유복가) 이 예언서를 풀어 알면 복이 있는 집안이요, 未解此書無福家(미해차서무

복가) 풀지 못하면 복 없는 집안이다.

此言不中排天語(차언부중비천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네. 是誰敢作此書傳(시수감작차서전) 누가 감히 이와 같은 글을 지어 전한단 말인가

성인(구세주 조희성 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예언한 그대로 조희성 선생께서는 2004년 6월 19일 육신을 벗으셨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모습을 수원나그네라고 하면서 누가 그분을 알아보겠는가 하였다.

수원나그네란 정조(正朝)가 부친인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수원으로 암행(暗行)하였을 때 만난 선비에게 과거시험을 보게 하여 그때 그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과거 시험 문제로 출제하여 그 선비를 합격시킨 후 그 선비가 정조를 알현하면서 당시 만났던 분이 임금인 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에게 다정다감하고 자비로운 인간적인 모습을 보

여주셨던 조희성 구세주께서 찬란한 영광의 빛의 존재로 다시 오실 때 누가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할 구세주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평상복을 입은 정조를 임금인줄 몰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앞에서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역사하신 조희성 선생이 심판의 구세주로 임하시니 ‘수원나그네’라고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가 바로 선인(善人) 즉 의인이 된 사람들과 영웅(英雄) 즉 구세주가 다시 만나는 해로구나 하였다. 이렇게 예언된 이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를 풀어 알게 되면 복이 있는 집안이라고 했다.

보광하신 주님은 다시 오시어 인류를 심판하는 구세주의 사명을 다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이기고 이겨야 할 것이다.*

승리신문 최초 창재 김만철 탈북기 6면 연재

6면 일본어 말씀은 다들간 사적으로 합니다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정음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 전성남 승사 촬영



군산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 박준주 장로 촬영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노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